

누리과정 국고 지원... 지방재정 '숨통'

〈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전액 지원... 광주 658억·전남 911억 부담 덜어
시·도교육청과 갈등 해소... "유치원 예산도 국가가 책임져야"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왔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포함되는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을 바꿔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도 별도 재정지원 없이 떠남겼다"는 시·도 교육청과의 오랜 대립·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749억, 어린이집 658억원에 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497억, 어린이집 91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되면 광주는 1407억 중 658억, 전남은 1408억 중 911억원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을 들어 소홀히했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전년도까지 유치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조)상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누리과정의 경우 만 3~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의미하는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누리과정이라면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만큼 국가가 유치원 예산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촬영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요장면 촬영이 2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인근에서 진행됐다. 박기복 감독(오른쪽)과 배우 김꽃비(가운데)씨가 촬영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화감독의 화합과 80년대의 의문사라는 키워드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임을 위한 행진곡'은 80년 5월 당시 의문사한 아빠,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5·18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엄마,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국민개그우먼 딸 희수의 이야기로 오는 10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요장면 촬영이 2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인근에서 진행됐다. 박기복 감독(오른쪽)과 배우 김꽃비(가운데)씨가 촬영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화감독의 화합과 80년대의 의문사라는 키워드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임을 위한 행진곡'은 80년 5월 당시 의문사한 아빠,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5·18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엄마,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국민개그우먼 딸 희수의 이야기로 오는 10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 사업비 원안 통과 ▶ 2면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어디까지 ▶ 6면

KIA 내일 '월드 유니폼 데이' ▶ 20면

한전공대 설립 '급물살'

조환익 한전사장 국회 답변 "나주 혁신도시에 시너지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조환익 한전전력 사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한전공과대학 설립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한전공대는 일반종합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분야가 될 것"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경4000조에 달하며 (한전 공대는 그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망한 미래 산업에서 해당 분야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고 한전공대는 기존 일지리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사장은 한전공대 설립이 "한전

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경대수 청문위원이 "한전 인사처가 보낸 내용에 '공대 설립이 정관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관과 법 해석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조 사장은 "(대학설립은) 개발, 영업, 해외사업, 연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관련된 제반사업의 투자 또는 출연"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공대를 나주혁신도시에 설립함으로써 기존 공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 임동욱기자 tuim@

불균형 발전의 구조적 원천 장단기 인프라 계획 바꿔야

문재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6> SOC 영호남 불균형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철도·고속도로·항만·공항

수도권·영남 편중 심카

이명박·박근혜정부 국도 불균형 발전의 구조적 원천인 국가 장단기 인프라 계획부터 차기 정부에서 신속하게 수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요와 효율성만을 토대로 인구 집중 지역의 편성 증진을 위해 국가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 경쟁력,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등과 직결되고 있으며, 이들 계획이 2020년이나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등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간 불균형이 고착될 가능성도 높다.

25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국가교통시설의 총합적 체계적 확충을 위한 5년 단위 투자계획인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은 물론, 부분별 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0),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등이 일제히 확정 고시됐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비 43조 원 등 70조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9조2000억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14조412억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28조9000억원 등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 등 무려 13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지난해 결정된 것이다. 이들 계획은 한결같이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시실별로는 인천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경부선 등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역 및 시설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광주·전남에 투입되는 비중은 5%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2면으로 계속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등이 일제히 확정 고시됐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비 43조 원 등 70조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9조2000억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14조412억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28조9000억원 등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 등 무려 13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지난해 결정된 것이다.

이들 계획은 한결같이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시실별로는 인천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경부선 등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역 및 시설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광주·전남에 투입되는 비중은 5%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담고 있는 36개 신규사업 중 광주·전남에 해당 하는 것은 경전선 3개 구간으로, 진주~광양 전철화(57.0km) 1524억원, 광주순정~순천 단선전철화(116.5km) 2조304억원, 보성~목포 단선전철화(82.5km) 1702억원 등이다. 향후 10년간 256km의 철도사업에 2조353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36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44조631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5.3%(사업비 기준) 수준이다.

목포~제주(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사업비 16조8000억원),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3조50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우(2조22억원), 익산~여수 고속철도화도 제외됐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주선(사진)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안을 의결했다.

신임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9명의 비대위원도 임명했다. 원내지도

부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호호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현역의원 가운데서는 이찬열, 김광영, 김종로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외에서는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조규선 충남도당위원장, 여성·청년 몫으로는 김경화 전 부대변인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최대 15명 내에서 추가로 위원을 임명한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jh-newstay.com

중산층 주거혁신 **NEWSTAY**

8년 기업형 임대아파트 헬스케어 특화 아파트 명품 뉴스테이!

효천지구 중흥S-클래스 뉴스테이

광주가 처음 만나는 헬스케어 특화 아파트, 효천지구 중흥S-클래스 뉴스테이! 셀프 건강검진과 시니어 프로그램 등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효천지구 뉴스테이가 옵니다!

5월 26일 OPEN

뉴스테이 프리미엄

- 청약자격 제한 **무**
- 임대료 걱정 **무**
- 8년간 이사걱정 **무**
- 취·등록세 **무**

광주 최초, 맞춤형 주거서비스 헬스케어 특화

- 헬스케어 매니저
- 시니어 프로그램 제공
- 셀프 건강검진실
- 헬스케어 패키지

공급일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
5월 26일(금) ~ 28일(일)	5월 30일(화) ~ 31일(수)	특별공급: 5월 29일(월) 일반공급: 6월 5일(월)	6월 6일(화) ~ 8일(목)

뉴스테이王大박 경품행사

주택전시관 오픈기념 선착순 이벤트

오픈 3일(5월 26일~28일) 매일 선착순 100명 사은품 지급

5월 27일(토) 오후 4시	5월 28일(일) 오후 4시
대형TV,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선풍기, 자전거, 라면, 잘물리는집 등	김치냉장고,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선풍기, 자전거, 라면, 잘물리는집 등
6월 3일(토) 오후 4시	6월 4일(일) 오후 4시
양문냉장고,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선풍기, 자전거, 라면, 잘물리는집 등	공기청정기,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선풍기, 자전거, 라면, 잘물리는집 등

A2블록 59㎡ A·B·C·D·E 총 610세대
공공문의 1899-5658
주택전시관: 광주광역시 서구 죽동대로 16(동성동 330-55)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가능